

세계 최대 바이오시장서 글로벌 세일즈... 경영진 지원사격

SK(주), 美 'SK 바이오 나이트' 개최
바이오팜·팜테크 등 관계사들과
파트너십 확장 네트워킹 행사
장동현 부회장 등 경영진 참석
뇌전증 치료제 '세노바메이트' 등
글로벌 확대현황·신약전략 발표

투자전문회사 SK(주)가 SK바이오팜, SK팜테크 등 바이오 관계사들과 공동으로 세계 최대 제약·바이오 시장인 미국에서 글로벌 파트너십 확장을 위한 네트워킹 행사를 개최한다.

SK(주)는 오는 11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포시즌스 호텔에서 SK(주) 제약·바이오 기업과 글로벌 파트너사, 투자회사 등 50여개사 관계자 약 100명이 참석하는 'SK 바이오 나이트(SK Bio Night)'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날 행사에는 장동현 SK(주) 부회장을 비롯해 이동훈 SK바이오팜 사장, 요그 알그림(Joerg Ahlgrimm) SK팜테크 사장, 김연태 SK(주) 바이오투자센터



터장 등 SK(주)의 제약·바이오 사업을 이끌어 나갈 새로운 경영진이 모두 참석한다. 이 행사에서는 관계사들과 미래 사업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투자자와 파트너사와의 협력관계를 다지고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한 세일즈에 대해 논의한다.

SK바이오팜, SK팜테크, SK(주) 바이오투자센터는 최근 글로벌 제약·바이오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사업 기회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CEO

및 투자센터장을 신규 선임한 바 있다.

SK(주)는 김연태 바이오투자센터장이 나서 합성약품 중심 포트폴리오를 넘어 바이오의약품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간의 노력과 향후 방향을 설명한다.

국내 최초로 독자 개발한 뇌전증 치료제 '세노바메이트'(미국 제품명: XCOPRI, 엑스코프리)를 성공적으로 미국에 출시한 SK바이오팜은 이동훈 사장이 직접 나서 세노바메이트의 글로벌



김연태 SK(주) 바이오 투자센터장

시장 확대 현황과 SK바이오팜의 차세대 혁신 신약 파이프라인 구축 전략에 대해 발표한다.

SK 팜테크는 의약품 위탁생산 사업(CDMO) 분야의 신성장 영역인 세포·유전자 치료제(CGT: Cell & Gene Therapy) 분야에 성공적으로 진입 후 글로벌 CDMO 기업으로 진화 중으로, 요그 알그림 사장이 사업 비전 및 경쟁력, 글로벌 CDMO로서 운영 방향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SK(주)는 제약·바이오 사업 초기부터 철저한 현지화 전략을 바탕으로 글로벌 최대 시장인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합성 신약과 CGT CDMO 사업 등에 선택·집중해 경쟁력을 높여왔다.

SK(주)는 국내 SK바이오팜을 필두로 2017년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쿼브(BMS·Bristol Myers Squibb)이 보유한 아일랜드 공장(현 SK바이오팜 아일랜드), 이듬해 미국 앰팩(Ampac) 등을 인수했고, 2019년에는 한국과 미국, 유럽에 걸친 CDMO 사업 통합 운영을 위해 SK팜테크를 설립했다.

2021년 SK(주)는 SK팜테크를 통해 프랑스의 이포스케시(Yposkesi)를 인수하며 CGT CDMO 사업에 진입한 후 2022년 미국 CGT CDMO CBM(Center for Breakthrough Medicine)의 2대 주주로 올라섰다.

김연태 SK(주) 바이오투자센터장은 "이번 행사는 그간의 성장을 전 세계에 알리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미국, 유럽 등 글로벌 시장 거점을 중심으로 바이오 사업 현지화를 통해 성장 기회를 선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라스베이거스(미국)=최빛나 기자
vitra@metroseoul.co.kr

SK E&S, CES서 美 플러그파워와 '수소 파트너십' 강화

추형욱 사장, 앤디 마시 CEO 만나
주요사업 점검·협력 방안 등 논의

SK E&S가 글로벌 수소에너지 선도 기업 플러그파워(Plug Power)와 수소 생태계 구축을 가속화하기 위한 협력 체제 강화에 나섰다. SK E&S의 추형욱 대표이사 사장이 'CES 2023' 현장을 찾아 글로벌 파트너사와의 협력을 공고히 하고, 그린에너지 사업을 추진으로 사업 경쟁력을 강화는 물론 글로벌 탄소 감축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5일(현지시간)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3' 현장에서 SK E&S는 추 사장은 앤디 마시(Andy Marsh) 플러그파워 최고경영(CEO)를 만나 'SK 플러그 하이버스'(SK Plug Hyverse)의 주요 사업 현황을 점검하는 등 수소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양사는 지난해 1월 합작회사(JV) 하이버스를 설립하고 아시아



추형욱 SK E&S 대표이사 사장(오른쪽)이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3'에 마련된 SK전시관에서 앤디 마시 플러그파워 CEO와 만나 사업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SK E&S

아 시장 수소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 중이다.

양사는 우선 액화수소 충전소를 시작으로 수소 사업 협력을 본격화한다. 올해 SK E&S는 연산 최대 3만톤 규모 인천

액화수소플랜트 상업가동을 시작한다. 하이버스는 전국 주요 수요처 인근에 액화수소 충전소를 구축해 SK E&S가 생산한 액화수소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수소 핵심설비 생산기지'인 인천 '기가팩토리(Giga-factory)' 건설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하이버스는 내년부터 수소 연료전지와 전해조 설비의 대량 생산체계를 갖추고, 국내 및 아시아 시장에 제품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추 사장은 앤디 CEO와 만난 자리에서 "수소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플러그파워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국내 수소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앤디 CEO는 "SK그룹의 에너지 분야 사업 역량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양사가 한국을 넘어 아시아 수소 연료전지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ES 기간 동안 SK전시관에서는 플러그파워의 수소 연료전지 '젠드라이브(GenDrive)'와 수소 충전기 '젠퓨얼(GenFuel) 디스펜서' 등을 선보였다.

미국의 수소 기업인 플러그파워는 그린수소의 생산, 저장, 활용을 포괄하는 그린수소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지게차용 연료전지 분야에서 미국 내 시장점유율 95%를 자랑할 뿐만 아니라 물을 전기분해해(수전해)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전해조 설비 제조 기술력 분야에서도 대규모 수주를 이어가는 등 선도적 입지를 다지고 있다.

앞서 SK E&S는 2021년 초 SK(주)와 함께 플러그파워에 약 1조 8000억 원을 투자해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한 바 있다.

추 사장은 에버차지(EverCharge) 제이슨 아펠바움(Jason Appelbaum) CEO와도 만나 미국 내 전기차 충전 시장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LG전자 '프라엘 더마세라' 탄력 관리기 출시

볼·이마 등 처진 얼굴라인 케어
턱밑 35% 이마 30% 탄력 개선

LG전자 프라엘이 불편함 없이 얼굴라인을 케어해준다.

LG전자는 10일 LG 프라엘 더마세라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턱밑과 이마, 눈 주변과 볼 주변 등 처지기 쉬운 얼굴 부위 탄력을 관리해준다. 헤드 부위를 피부에 밀착해 버튼을 터치하면 초음파가 피부 3mm 아래 부위에 정확하고 균일하게 조사해 콜라겐을 만들어주는 원리다.

LG전자는 초음파로 자칫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페인 포인트'에 주목했다. 초음파를 정밀하고 균일하게 제어하는 기술을 적용하는데에 초점을 맞추고 불편함 없이 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한 것.

피부탄력 관리 효과도 증명했다. P&K 피부임상연구센터가 성인 여성 2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피부 개선 실험 결과에 따르면 주 1회씩 4주 동안 더마세라를 사용하여 턱밑과 이마 피부 탄력을 각각 34.8%와 29.8%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공대와 산학협력을 통해 인체공학 디자인도 적용했다. 피부에 닿는 헤드 크기와 손잡이 두께는 물론 제품 무게(280g)와 길이(20cm) 등은 한 손으로 들고 사용하기에 편리하다.

LG전자 휴먼티사업담당 남혜성 상무는 "초음파 제어 기술과 앱 연동성을 강화한 LG 프라엘 더마세라를 앞세워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피부 탄력을 관리하는 고객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LG화학, 금속 대체 '플라스틱 펜더' 미쓰비시차에 적용

차량 무게 줄여 연비 향상 기여
배출가스도 줄여 탄소발자국 감소

LG화학이 차량을 가볍게 하는 정전도장 플라스틱 소재를 미쓰비시자동차 외장에 적용했다.

LG화학은 미쓰비시 자동차의 스포츠형 다목적 차량(SUV)인 아웃랜더(Outlander), 델리카(Delica) D:5, RVR 3종의 프론트 펜더에 LG화학의 정전도장 플라스틱 소재(제품명 LUCON TX 5007)가 적용됐다고 10일 밝혔다.



프론트 펜더에 LG화학의 정전도장 플라스틱 소재가 적용된 미쓰비시 자동차의 Outlander /LG화학

프론트 펜더(헨다)란 앞쪽 타이어를 덮고 있는 자동차 옆면의 외장 부품이

다. 운전 중에 지면으로부터 튕 가능성 많은 진흙이나 물부터 차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금속으로 만들어지는 프론트 펜더를 LG화학은 정전도장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가볍게 했다. LG화학은 200°C가 넘는 페인트 건조 과정을 견딜 수 있고 뒤틀림이 적은 폴리페닐렌 에테르(PPE) 소재와 충격에 강한 폴리 아마이드(PA) 소재를 섞었다. 여기에 전기를 통하게 해주는 탄소나노튜브(CNT)를 첨가해 정전도장 플라스틱을 만

들었다.

정전도장 플라스틱으로 만든 프론트 펜더는 자동차를 도색할 때 금속 차체와 함께 한 번에 칠할 수 있어(Online Painting) 효율적이다.

또한 자동차에 사용되는 금속을 플라스틱으로 대체하면서 차량의 무게가 줄어 연비가 향상된다. 차량의 배출가스도 줄어들면서 탄소 발자국 감소 효과도 기대된다.

LG화학의 정전도장 플라스틱은 프론트 펜더 외에도 범퍼, 사이드미러, 트렁크, 연료 주입구 등 자동차 부품사고 객들이 원하는 외장 부품에 적용 가능하다. /허정윤 기자